

## 과제 제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새로운 데이터의 기회를 발판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중 11대 실전 과제는 크게 '민간중심 생태계 혁신',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으로 나누어 집니다.

'민간중심 생태계 혁신' 에는 첫 번째로 국세청, 교육청,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미 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두 번째로는 데이터 결함, 비표준화, 기계가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한 경우 구매 초기 수요를 만들어주는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 지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거래 가능한 데이터 검색에 어려움으로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가 있습니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에는 다섯 번째로는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국가가 보유하지 못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여섯 번째로는 데이터 관련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력 부족 및 그 인력의 역량 부족으로 데이터 사용 관련에 어려움을 느껴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업종 및 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달라 활용에 진입규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책', 여덟 번째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고리즘 오류로 데이터가 개인의 차별,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등의 불공정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아홉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화재, 질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는 미래에 대비하도록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 코로나19가 진행하기 이전부터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수없이 나타나는 특별상황 분석 및 향후 발생시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열한 번째로 코로나와 달리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이 있습니다.